

제42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 개최

민선 8기 새 도정의 비전과 도민 희망메시지 전달·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도민 대표 도민헌장낭독·14개 시군 화합 퍼포먼스

제42주년 전라북도 도민의 날 기념식이 2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됐다.

도내 기관·단체, 전북인대상 수상자, 출향도민 시군 및 기업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라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벵가 악어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접어드는 시기 한 해의 풍년을 기뻐하고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조례제정 후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전북을 향한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며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북인대상 시상, 축하영상메시지, 축하공연, 단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 4개 분야로 박상현 우리비엔비 대표이사, 박종환 계성건설



제42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이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지사, 14개 시장군수 등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구호와 함께 도민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대표이사,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레티갑홍 남원시 가족센터 봉변역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올해로 42돌을 맞이하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사, 재경도 민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도내외 주요인사의 축하영상과 이산빈 행정안전

부 장관의 축전을 통해 도민의 날을 축하하고 민선 8기 합찬 출발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14개 시장·군수 등이 한 무대에 올라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구호와 함께 전라북도의 새 비전과 청사진을 3D 홀로그램 화면에 구현하는 퍼포먼스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가능성이 가득한 전라북도를 혁신과 도전의 정신으로 온 도민이 함께해 새로운 전북, 성공한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당찬 포부와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단식

우수선수 13명에 상장·메달 수여·기능경기유공자에 도지사 표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5일 전주 그랜드 힐스컨벤션에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단식을 개최하고 입상선수·지도교사 등 기능경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는 지난 9월 진행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선수 13명에게 메달과 상장 전수식이 진행되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도교사를 비롯한 기능경기 유공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식도 거행해 도내 기능인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장이 됐다.

더불어 전주공고 교장 윤용진 전북기능경기위원회 기술위원장의 기술총평을 통한 경기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성적향상을 위한 결의시간도 가져, 내년도 기능경기대회의 향상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도는 31개 직종 8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금 1, 은 7, 동 5, 우수 1, 장려 19)하여 다방면에서 향상된 경기력을 보였다.

전북도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에게는 상급과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능우수인력에게는 도내 우수중소기업 취업지원도 제공하여 전북 발전의 미래가 될 기능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무더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훈련에 매진해온 선수와 지도교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앞으로 도 향상된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2023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선정

완주군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선정

산림조합 자립경영기반·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비 30억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마련 및 입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2023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에 완주군산림조합이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 서류검토,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내용의 적정성, 사업부지 확보 여부, 운영계획, 자기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적합성,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지역 우수 산림자원에 특화된 사업 지원을 통해 산촌거점권역 육성, 청정인산물 유통 활성화, 입업인 소득 안정망 구축, 지역특화품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활기 있는 산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과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복지과장은 "지역산림에 기반한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통해 산림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산촌 활성화는 물론 입산품의 품질향상과 입업경쟁력 강화로 실질적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 위반업체 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 적정관리 실태 확인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의 사업장 규모 2,000㎡(600평) 이상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영업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하여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 안내하여 인허가를 취득하게 하여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집중 점검 결과 36개소 사업장 중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 063-280-133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kr)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신임 센터장에 김대식 前 대사 선임

실리적 교류협력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 3대 센터장에 35년 관공의 외교관 김대식 前 주카자흐스탄 대사가 선임됐다. 김대식 신임 센터장(62)은 전주고과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7기)에 합격한 후 각국 대사관에서 재직했다.

주영국 공사참사관을 비롯 주오만 왕국 대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등을 역임한 국제교류 및 외교분야 전문가로 현재 시도시립의회 국제화지원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신임 센터장은 미국, 유럽, 중

동,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풍부한 국제역량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전라북도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김 신임 센터장은 전남국제관계사와 시도지사협의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정부 공공외교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전북 출신



인 그는 전북의 국제교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신임 센터장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2월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민선 8기 도

비전과 정책 실현에 발맞춰 센터가 전국 최고의 지방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소통중심 경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2015년 9월 출범한 이후 전북 국제화진흥사업, 글로벌 포럼터 전북사업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라북도 정통문화, 농생명산업 등 우수성을 전파하고,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도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구축 강화

전라북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숙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도 경찰청, 도 소방본부와 노숙인지원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사업지원' 공모에 '거점 노숙인복지시설'로 선정된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는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중이다. 핵심 역할은 14개 시·군을 통합한 노숙인 일시보호 기능 수행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는 노숙인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노숙인 보호 방향을 모색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드립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상속 농지를 소유한 자, 이농·고령·질병·직업전환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인의 농지도 매입해주고
-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농지매입자를 직접 구하기 힘든 분
- 이농·고령·질병 등으로 영농을 은퇴하고자 하는 분 등

어떤 농지가 가능한가요?

- 농업진흥지역 안 1,983㎡ 이상인 농지
-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는 1,000㎡ 이상인 농지도 매입 가능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 밭 기반 정비 완료된 1,000㎡ 이상인 농지
- 국외계좌입상 체계관리지역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농지매도 수수료 없음(단,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
-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금액으로 농지 매입

어떻게 알기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상담전화 063-650-7031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